

교수칼럼

### 수요·공급으로 이해하는 경제



신원문 교수  
(경제학)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요즘이다. 한국은행은 연 8회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하는데, 2022년 들어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리 인상을 결정했으며 그중 두 차례(7월 및 10월)에서는 이례적으로 0.5%p의 기

준금리 인상 소위, 빅스텝(big step)을 단행할 정도로 물가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듯 인플레이션과 한국은행이 연일 뉴스에 등장하던 어느 날, 필자의 장모가 필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물가가 올라가면 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장모님께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머릿 속에는 여러 가지 개념과 이론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라든가, IS-LM 모형이라든가, 통화주의자 이론이라든가…… 필자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여러 내용이 머리를 스쳤다.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장모님께 꺼낼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최대한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

게 설명하기 위해 필자가 꺼내던 것은 ‘수요-공급의 원리’였다. 물가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가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물가수준이 낮을 때는 만 원으로 삼삼살 한 근을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올라 삼삼살 반 근밖에 살 수 없다면 만 원의 가치는 절반으로 하락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물가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은 돈의 가치, 정확하게는 구매력을 높이는 노력과 같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은 저축을 더 많이 하고자 할 것이고, 이는 은행 밖 즉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감소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바로 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공급이 감소하면 돈이 귀해지니 자연

스럽게 돈의 가치는 상승한다. 경제학을 처음 접하는 학우들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모형은 백중 구십구 ‘수요-공급 모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이 수요-공급 모형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모형이다. 동시에 경제학 전반에 걸쳐 가장 강력한 모형도 수요-공급 모형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품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그리고 상품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른바 균형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된다. 이러한 수요-공급 모형은 시장에 따라 해당하는 가격과 수량만 적절하게 변경해주면 어떤 시장이나 적용이 가능하다. 예

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고용량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국민경제의 물가수준과 국민소득은 경제 전체의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구조의 변화나 정책의 도입 등이 임금과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다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고, 물가와 GDP에 미치는 효과가 궁금하다면 총수요와 총공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해 보면 된다.

물론 사회와 경제가 복잡한 만큼 단순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물가상승률 둔화에 효과적이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치한 이론과 모형에 대한 이해 및 현실 경제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필자의 장모와 같이 비전문가에게 경제 현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수요-공급 원리만큼이나 훌륭한 도구가 또 있을까. 모형이 단순하다고 하여 틀린 설명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단편적으로 설명한 후에 살을 붙여가면서 보완하고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혀가면 될 뿐. 그렇기에 수요와 공급 원리의 적용은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좋은 출발점이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시나브로 :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 우리 대학 학생사회 발전을 위하여



이제우(경영학·20)

필자는 ‘코로나 학번’인 20학번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신입생 시절 총학생회 모집 공고는 떨리는 대학 생활의 첫 시작이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학교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우리 대학 제35대 ‘타겟’ 총학생회 정책위원으로 학생회 활동을 시작했다.

‘타겟’ 총학생회 시절,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기 어렵던 졸업앨범 촬영, 졸업가운 대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등을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뿐만 아니라 온택트 축제, 이동식 학생회, 집현전 특강 등을 기획하며 비대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신입생 때 총학생회를 경험한 후에는 소속된 경영학과 학우를 위해서도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에 1학년 말과 2학년 초, 총 2번의 경영학과 학생회장 선거를 준비했다. 그러나 비대면의 영향 탓인지 두 번의 선거 모두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며 성사되지 못

했고 경영학과 학생회를 향한 도전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두 번째 선거를 마친 뒤 2학년이 되어서 제39대 총동아리연합회 ‘행동’ 기획 1국 팀장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건국대학교와 함께하는 ‘광진구 점령전’, 서울시내 총동아리연합회와 함께하는 ‘서울 동아리 대잔치’, ‘서울시총동아리연합회협의회’ 등의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하며 중앙동아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특히 동아리 활동은 대학 생활의 꽃이며 청년 문화의 주축이라는 생각에 제40대 총동아리연합회장에 출마했고 당선됐다.

제40대 ‘시동’ 총동아리연합회장을 역임하며 총학생회의 부재로 인해 결성된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특히 두 번째로 주최한 ‘광진구 점령전’은 이전보다 더 큰 무대에서 진행됐고 광진구청장도 참석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동아리 캠프, Summer Busking Day, 가두모집(Re:Cruit) 등의 행사도 주최했다. 이 밖에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우리 대학 학우들이 낸 소중한 등록금의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이처럼 필자는 다양한 학생자치기구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열심히 해온 만큼 3년간의 학생회 생활에는 아쉬운 점도 많다. 이에 앞으로의 학생자치기구

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먼저 공정감사위원회 독립기구 개편 및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공정감사위원회는 우리 대학 총학생회 산하 독립기구이다. 공정감사위원회의 인원은 감사시행세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총학생회 사무국장,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전임 공정감사위원(장) 중 최소 6인 이상이 참여해 구성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총학생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독립기구로 전환해 투표 등을 통해 선출되도록 해야 하며 감사 등에 있어 권한 확대가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인수인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우리 대학 총동아리연합회의 경우 차기 집행부 당선 확정 이후부터 전대 임기 말까지 공동 업무 기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동 업무를 통해 인수인계를 체계화시킨 뒤 관련 회칙을 상정해 제도화해야 한다. 제도로서 인수인계가 안정화돼야만 우리 대학 학생자치기구의 다양한 경험들이 이어져 효율적인 학생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석회의를 추가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현재 사무연석회의가 회칙 상으로 존재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외에도 필요할 경우 기획 및 홍보를 주제로 추가적인 연석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방안은 학우들

이 함께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통일된 홍보방안을 상정해 우리 대학에 관한 일관된 브랜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등 학생복지단체의 체계화도 시급하다. 기존에 우리 대학에는 생협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학우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나 생협이 사라지면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 대학 학우들이 주축이 돼 생협을 다시 설립한다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마스کو트 개발 및 굿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면 학생복지기금 또한 마련할 수 있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감사시행세칙, 재정운영세칙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사회 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회칙인 만큼 현행보다 더욱 명료화하고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문장구조의 개선, 재정운영 방법의 체계화, 계정과목의 세분화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비회계 분배기준을 개편해야 한다. 현재 교비회계는 이전 행사에 맞춰진 예산을 기반으로 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대학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에 예산들은 각 학생자치기구끼리의 협의 혹은 제안서 제출 등을 통해 책정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세종고사

### 세종고사

이름:  
학번:

1. 지난 28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제36회 총학생회 선거에서 당선된 선거운동본부 이름은 무엇인가? (1번)

답: \_\_\_\_\_

2. 우리 대학 Wifi 명칭은 무엇인가? (3번)

답: \_\_\_\_\_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대신문사

■ 답안지를 채워라!

1. 신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본다.
2. 카카오톡에서 @세종대신문을 추가한다.
3. 카카오톡에 문제의 답과 아래 사항을 보낸다.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681호 쓱쓱쓱 퍼즐 정답 및 당첨자

정답: 총학생회 선거/8군데  
당첨자  
: 박유진(행정학과·22)  
장혜교(행정학과·22)  
정윤서(스마트기학과·20)

정답 : 00 / 000000

이름 / 학과 / 학번

슬기로운 문화생활

### 오늘, 공을 만나다



김수진(경영학·21)

10월 1일부터 9일까지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개최됐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 주최하는 궁중문화축전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사직단, 온라인 등에서 만날 수 있다. 고궁음악회, 고궁 책방, 경복궁 생과방 등 사전예약 프

로그램뿐 아니라 위대한 유산, 정오의 궁 산책, 궁중 놀이방 등 예약 없이 참여 가능한 행사도 많다.

궁중문화축전 동안 예약 없이 매일 만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보자. 광화문에 들어서면 조선시대 왕실호위문화인 ‘수문장 교대식’ 재현 행사를 볼 수 있다.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흥례문 광장에서 재현되며 큰 북의 신호로 시작한다. 첫 번째 북 신호인 초음이 울리면 대취타와 함께 교대 수문장이 출발해 광화문에 도착한다. 두 번째 북 신호인 이음이 울리면 교대 수문장과 당직 수문장의 신분을 확인한다. 교대

수문군의 광화문 배치 후 당직 수문장과 수문군은 세 번째 북 신호인 삼음이 울리면 퇴장한다. 수문장, 종사관, 감사 등 다양한 직책과 역할의 사람들은 환도, 휘(깃발), 의장기로 무장한 채 행진한다. 화려하고 역사적 고증이 잘 녹아있는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은 경복궁에 오면 반드시 관람해야 할 행사이다.

흥례문과 용성문 사이 흥례문 광장에서 ‘만들어보자궁(宮)’ 프로그램을 통해 블록으로 광화문, 근정전, 향원전 등 궁궐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직접 만들 수 있다. 야외에 전시된 작품에 왕, 왕비의 휴식공간이던 향

원전, 경복궁을 지키는 수문장이 있는 광화문 등이 있는데, 작지만 정교하고 구색 갖춘 작품들을 통해 우리 문화재의 특색과 멋을 느낄 수 있다.

근정전, 경회루, 민국 소주방을 지나 집경당에서는 ‘궁중놀이방’에 참여할 수 있다.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공기놀이, 윷놀이 등 우리나라 전통 놀이를 즐기고 있다. 여러 사람이 모여앉아 편을 나눠 윷놀이를 즐기고 있으며 한 참여자가 공기놀이를 순발력 있는 손재주로 발휘하자 외국인도 이를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구경했다.

집경당 뒤편에 경복궁의 아름다

운 누각인 향원정이 있다. 이곳에서 ‘섬공섬공-공을 읽다/보다/느끼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공을 ‘읽어’보자. 고종이 서재로 삼았던 집옥재 근처 야와 책가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책가도 옆에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전통문양이 새겨진 방석이 깔린 의자들이 놓여 있다. 다음으로 공을 ‘보’자. 넓은 연못이 누각을 둘러싼 향원전은 감상하기 좋은 각도의 벤치에 앉아 풍경을 즐기고 명상을 하며 기분을 전환할 수 있다.

향원전 뒤편 집옥재, 팔우정, 협길당에서 ‘고궁책방-고종의 책방’

에 참여할 수 있다. 집옥재의 서가에는 조선시대 사상, 생활 등에 관한 책이 있다. 관심있는 도서를 들고 책상에 앉아 탁 트인 동그런 창을 통해 그림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돌담 앞 정갈한 소나무들은 이곳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공부한 학당이였는지 모른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협길당에서는 전통매듭 짓는 법을 익혀 멋과 전통이 살아있는 책갈피를 만들 수 있다. 또 팔우정에서 대한제국 시기 고종의 근대문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되는 인문학 콘서트가 열린다.